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일시 2020년 8월 12일(수) 오후 1시 15분

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통일평화연구원 (교육협력동 9층 회의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05 박명규(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하나의 꿈, 세 축의 기획

09 임홍배(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HK평화인문학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5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와 교육의 선택과 집중 전략

19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네크워킹의 평화인문학: 평가와 전망

25 이문영(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인문학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29 김성철(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계획과 모델

33 이효원(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교수)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심화 발전 방향

37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교수)
통일학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43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49 최규빈(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연구의 현황과 진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제를 중심으로

53 최진용(농업생명과학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자원불균형으로 평화문제 살펴보기: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하나의 꿈, 세 축의 기획

박명규(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하나의 꿈, 세 축의 기획

박명규(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1. 하나의 꿈

2006년, 연구소 (설립 당시 명칭은 통일연구소) 설립책임을 정운찬 총장께로부터 부탁받고 초대 소장에 임명된 이후 통일평화연구소장을 거쳐 통일평화연구원장으로 보직 5연임, 10년의 시기를 보냈다.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내 50대를 통째로 투신한 기간이었고 통일평화연구원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동영역을 구축하는 기간이었다. 일관되게 견지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연구조직, 전문성으로 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학술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동경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나 스탠포드의 인문학연구센터, 오슬로의 평화연구소 등이 모델이었다.

연구소 공간도 조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내건 목표로는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목표를 꿈처럼 내걸고 초대소장 보직을 수락했다. 교수들의 파트타임 보직과 프로젝트 인력으로 운영되는 부설기관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교내 조직이지만 독립적이고, 사회적 존재감과 영향력은 뚜렷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연구기관, 그래서 국내와 국외,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인정받는 학술조직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꿈이었다.

비전이 뚜렷하면 시작은 비록 미약해도 끝은 창대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연구자의 확보, 연구 아젠다의 개발은 이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전담 교수 직제, 장기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독립연구기관의 필요성을 학교 안팎으로 역설했다. 연구소 내부로는 전문성과 헌신성을, 외부로는 책임감과 겸손함을 강조했다. HK 사업에의 참여로 이런 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큰 행운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없지 않았지만 그 비전이 소중한 방향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첫 총장직할 본부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해 준 학교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

2. 세 축의 기획

이런 목표는 하루 아침에 기획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문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내부의 기존 역량을 결집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 외부의 자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신설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량, 성격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크게 세 축의 활동을 추진했다.

1) 기초 데이터와 시계열 자료의 구축

연구소의 일차적 존재감은 독자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데이터나 자료의 질과 양에 근거한다. 북한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의 경우는 속성상 자료 구축이 어렵다. 통일부나 국정원, 정부문서보관소의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당이나 언론사 부설 기관들은 각자의 이해관심에 따라 자료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곤 한다. 누구나 활용하고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정확한 자료의 산출과 공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 북한사회변동연구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만들어지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공

유되지 않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통일의식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를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로 부각시키려는 작업이었다. 실제로 이 조사자료가 매년 발행되고 공개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과 민주적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남북통합지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의 각 영역별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 의식통합의 수준과 속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수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치협상 차원에서만 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소산이다. 북한사회변동연구 역시 탈북자들에 대한 쉽지 않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들 자료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생산됨으로써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도록 기획했다. 이들 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연구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차적인 징표라 하겠다.

2) 새로운 담론과 화두의 발산

새로운 담론과 화두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새롭게 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돕는 것도 연구소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익숙해진 개념, 당연시되는 주장, 이념적 사고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도덕적인 당위론이나 민족주의적 명분론으로부터도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정책으로부터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연성복합통일론은 탈냉전 초기에 구상된 통일론의 보완필요성을 촉구했고 북한국제화라는 화두는 북한의 시장화 및 정상국가화에 부응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 것이다. 또한 이들 논의는 한반도 문제를 민족관계로 보는 시각과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도 포함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변화를 한반도 상황과 대비할 필요를 강조한 양안연구 역시 사고의 확대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화에 대한 담론을 확대시키는데 큰 힘을 쏟았다. 평화와 통일의 관련성을 보다 성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일평화'라는 조어를 내놓았고 평화는 수단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가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관계나 정치군사적 차원에 한정하지 않는 문명론적인 평화연구를 강조했고 이를 위해 평화인문학을 연구소 공동의 아젠다로 삼는 HK 사업을 추진했다.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엄밀성, 지속성, 확장성이 부족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3) 소통의 플랫폼과 지적 네트워킹

독자적 연구 활동 못지않게 외부의 연구자, 관련주체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킹은 연구소의 필수자산이다. 안팎으로 존재감이 있고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연구기관들도 실제 타 연구기관 및 관련주체들과의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독자적인 연구역량 확보 못지않게 국내외 연구자 들을 연결하고 공통의 관심을 발전시켜가는 노력이 중요했다.

평화학을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적 연구의 허브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AJP 간행을 기획한 것은 그 일환이었다. 창간 이후 짧은 기간에 SCOPUS 저널로 자리잡은 것은 책임자의 헌신적 노력이 컸지만, 그만큼 아시아지역에서 평화 연구 허브가 필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내에서는 통일평화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러 대학, 분과학 별로 진행되는 연구활동들을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중복된 주제나 조사를 피하고 선행연구의 성과 위에서 한단계 진전된 연구를 뒷받침하는 정보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이 유의미한 학술적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도록 돕는 공유 인프라가 되기를 바랐다. 이런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노력과 성과가 얻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HK평화인문학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임홍배(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HK평화인문학 연구단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임홍배(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1. 사업 선정시 계획 대비 실적 (아젠다 중심)[1]

아젠다명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	
아젠다 개요	본 연구 사업은 21세기 한반도가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로서 '녹색'과 '평화'를 설정하고 녹색한반도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구상으로서 평화인문학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인문학의 문화생태적 측면과 발전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과 평화 담론 및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미래지향적 융합지식체계로서 평화인문학 구성을 시도한다.	
단계	**계획**	**주요성과(실적)**
1단계	평화인문학의 문화생태적 (eco-cultural)구성 → 평화인문학의 기초 정립	- SSCI & A&HCI급 논문 3편을 포함한 국제논문 5편, 등재(후보)지 논문 30편을 포함한 국내논문 37편, 저역서 22권. - 〈IPUS평화인문학총서〉 2권, 〈파라파쳄시리즈〉 2권, 〈평화학아카이브〉 2권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녹색평화란 무엇인가』, 『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 연구동향 파악, 자체 학습, 현실진단**
2단계	녹색발전 패러다임과 평화인문학 → 평화인문학의 체계화	- SSCI & A&HCI급 논문 2편을 포함한 국제논문 6편, 등재(후보)지 논문 35편, 저역서 17권 - 폭력연구, 분단연구, 위험연구 클러스터에서 아젠다 연구 심화 (『폭력이란 무엇인가』,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재난과 평화: 폐허를 딛고 평화를 묻다』,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평화를 걷다』, 『평화와 평화들』 『톨스토이와 평화』, 『이슬람의 영성과 평화』) **▶ (녹색)평화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3단계	미래지향적 융합지식체계로서의 평화인문학 → 평화인문학의 제도화	- SSCI & A&HCI, SCOPUS 급 논문 9편을 포함한 국제 논문 10편, 등재(후보)지 논문 40편을 포함한 국내논문 43편, 저역서 16권 - 한반도평화 아키텍처, 녹색평화문화, 탈냉전글로벌평화, 통일평화교육 연구팀에서 연구 심화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 Ⅱ』, 『세계평화개념사』,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발트3국의 길』,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평화상21』, 『평화운동: 이론, 역사, 영역』) **▶ 교육체계의 안착: 통일평화학 협동과정** **▶ 평화학의 학문적 정립 + 교내 연구 네크워크 구축**

1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총괄보고서』(2020.6.8.), 29쪽 이하.

▲ 그밖의 주요 성과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AJP) 연2회 발간(2012~)
시민교육: 통일아카데미, 평화교실(2013~)
통일연구 네트워크(2014~)
통일교육 선도대학(2016~2018)

2. 향후 과제

▲ (HK)연구단의 존치 여부

▲ HK교수 인력 자연감소에 대비한 연구역량 충원

– 특히 '통일'평화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 교내외 연구비의 지속적인 확보

▲ 교내 교수님들의 적극 참여, 협력 강화

▲ 아젠다 관련: 녹색평화의 가치와 현실분석의 결합 지향(아래 참조)

▲ AJP 관련: 현재까지는 별도의 개별적 원고청탁이 주종

=〉 국제 학술교류의 성과를 수렴하는 방안 모색

▲ 예산축소에 따른 사업 조정

[참고] 아젠다 심화 · 발전 계획[2]

우리 연구단은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해 1단계에서 '평화', '통일', '녹색'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평화인문학의 기초를 정립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평화인문학에서 제기되는 비평화의 맥락과 그 중층성을 '폭력', '분단', '위험'을 주제로 '비평화복합구성'을 쟁점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한반도평화아키텍처', '녹색평화문화', '탈냉전글로벌평화', '통일평화교육'이라는 네 개의 연구/교육 단위를 통해, '평화인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정의(define)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 Ⅱ』,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함석헌의 평화론』 등 '한반도 평화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연구와 '탈냉전글로벌평화'를 위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시리즈(발트3국, 베트남, 몽골)와 『세계평화개념사』, 『평화학과 평화운동』,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평화교육'에서도 〈통일·평화아카데미〉가 매학기 정기강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정부의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평화의 가치를 통일에 융합한 대학 통일교육 모델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교육 업적을 바탕으로 대학원 레벨의 '평화통일학 협동과정'을 개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첫째는 우리 연구단이 애초에 내걸었던 '녹색'평화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재난과 평화』 등을 발간하며 초기에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3단계에 이르러 연구주제가 확장되고 교육제도화 쪽으로 힘이 집중되다보니 녹색평화 아젠다의 동력이 약해졌다. 둘째는 3단계에서 평화인문학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평화학과를 설립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출발했고, 3단계에서 '통일평화대학원'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아쉽게도 중단되었다. 다행히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축소되어 개설이 되기는 하였으나 통일을 미래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다. 셋째는 우리 아젠다가 내걸었던 '한반도發 평화학'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못한 점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출판이 진행 중이나 연구기간 내에 출간하지 못하여 연구업적으로 포함되지는 못하였다.

2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총괄보고서』(2020.6.8.), 36쪽.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우리 연구아젠다를 심화·발전시킨다면, 우선 '한반도發 평화학'의 주제와 방법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연구할 계획이다. 모든 평화학은 고유의 주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와 경쟁하여 비교우위를 가지려면 한반도에서 세계로 발신하는 평화의 고유한 주제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야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생태·위험에 관한 주제, 즉 녹색평화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으로서는 DMZ와 접경지역연구 등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녹색평화 연구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제도화를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추진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와 교육의 선택과 집중 전략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연구와 교육의 선택과 집중 전략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 HK평화인문학 10년의 성과와 과제

- **한반도 문제를 북한학·통일학에서 평화학으로 확장·발전,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복합성 모색 등으로 북한·통일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소통 기반 마련**
- **그러나 북한, 통일 연구 상대적으로 미진, 특히 평화학과 북한·통일연구의 융합을 목표로 한 '한반도發 평화학'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
  -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층 분석과 통일정책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
- **녹색평화 부분도 계획과 달리 미진했지만 프로젝트를 받기 위한 의도적 측면도 있었고 많은 부분 다른 곳에서 이미 연구와 운동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크지는 않음. 그러나 통일평화대학원 설립이 무산되고 평화통일학 협동과정으로 축소되어 아쉬움이 많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HK인력의 전공분야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눠져 있고 연구주제의 범위도 다양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융합해 나가는데 어려움. 폭력, 분단, 위험 클러스터로 나누어 여러 연구들을 포괄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전체적인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

2. IPUS가 가야할 길

- **IPUS 14년과 서울대학교의 통일연구(통일포럼과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시작)를 돌아보면, 교내 다양한 전공교수들의 북한·통일연구 참여로 통일연구의 저변 확충. 정치와 경제 등 사회과학만 아니라 의학, 생활과학, 언어, 수학, 체육, 건축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다학제적으로 통일문제를 연구했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북한·통일연구의 특징.**
  - 서울대학교의 다학제적 통일연구가 한국사회에 지난 15~17년간에는 독창적이었고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으나, 최근에는 건축, 음식, 도시연구, 지역연구, 관광 등 학교 외부에서 다양한 분과학문의 북한·통일연구가 진행되었고, 유투브 등에 흥미로운 주제들로 관심을 모으는 '덕후'들이 생겨나서 초기에 비해 다학제적 연구의 독창성은 많이 약화.
- **외부 유관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주제의 선택과 집중 필요. 북한·통일연구의 주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변화, 통일과 체제통합, 비핵·평화 프로세스 등.**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유력한 이슈는 '북한'이며,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탈북민 등의 주제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2011.11). 주체사상 자부심 추이(연도별 조사),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시리즈(북한, 발트3국, 베트남, 몽골). 북한의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조어 필요, 예컨대 Global North Korea(동아시아연구소), 체제전환, 민주화, 개발협력, 시장화, 정보화 등. 향후 선택과 집중 주제 – *지역연구, 시장과 정보화.

- 통일과 체제통합은 통일학기초연구와 통일기반구축 사업 활용. 연성복합통일론((2010, 2012), 남북통합지수. *통일방안과 전략·비전
-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학 연구 활용. 북한국제화 201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0가지 제언(2017). *평화체제 이후 평화구축.

- **한편, 통일의식조사사업, 북한주민통일의식 조사사업 등 한국인 및 탈북(북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조사사업은 북한·통일연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게 됨. 앞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는 IPUS 미래전략의 중요한 부분**

- **북한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축적된 DB와 기존 연구자료 및 AI를 활용한 연구 추진.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누가 선점하느냐 관건.**
  - IPUS가 모든 자료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활용가능성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요. 교내 AI연구소와 공동연구.

- **교육 제도화 추진. 서울대학교가 연구소 체제로 출범한 시기도 2006년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음.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교내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 그런데 현재 교육제도화에서 비슷한 현상.**

- **통일평화의 교육제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동국대 북한학과, 고려대 북한학과, 이화여대 통일학과, 연대 통일학협동과정, 건국대 대학원 통일인문학과(2014.9) 등을 고려하면 서두를 필요.**
  - 건국대는 2019년부터 학부에 통일인문교육 연계전공 실시.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 석박사과정(2016)

- **특히 최근 강원대가 대학원에 평화학과(2019)를 신설하여 선두주자로 나섰음.**
  - 가톨릭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평화학 전공 신설(2017년 2학기 인문평화학 융복합전공 신설), 그러나 신청학생(7명) 부족으로 과정 취소. 2018년부터 평화학 개론 강의 개설
  - 성공회대 평화학과 준비 모색 중.
  - NGO에서 유엔평화대학 유치를 위해 강원도지사 접촉, 강원대 유치 가능성.

- **시흥캠퍼스를 통일평화캠퍼스로 발전시킨다는 학교의 목표를 활용. 시흥시대의 랜드마크로 통일평화대학원 신설. 2024-25년 시흥캠퍼스 완공에 맞춰 개원 준비.**
  -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캠퍼스 유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네크워킹의 평화인문학 : 평가와 전망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네크워킹의 평화인문학: 평가와 전망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 '한반도발평화학'을 위한 투트랙 네트워킹: 유럽(미국)과 아시아

- 지난 10년 HK평화인문학 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내외 네트워크의 확장 및 심화(총 120여 개의 국내외 기관가 교류)
- 한반도발 평화학 수립의 양날의 과제: 분단/북핵 문제라는 특수한 의제에 투철하되 이로부터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의제로 확장.
- 유럽-아시아 투트랙 네트워킹: 보편적 학문체제로서 기반을 갖춘 유럽 평화학의 성과를 참조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상대적으로 평화학이 자리잡지 못한 아시아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발 평화학'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또다른 축.
- '한반도발평화학'와 '아시아발 평화학'의 유기적 결합: 독일의 통일이 오랜 전쟁으로 상호 불신이 깊었던 유럽의 화해와 같이 갔던 것처럼, 한반도발평화학 또한 식민, 냉전으로 갈등이 깊은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모색과 불가분.
- 국내 네트워킹: 국립대 네트워크, 학회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평화학의 새로운 의제 개발

2. 평가와 전망

- 지난 10년 100여개가 넘는 국내외 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
- 그러나 지속성을 띤 교류는 대체로 20개 기관 이내이며 제도화된 형태는 매우 적음.
- 정례화의 형태로 지속된 포럼은 한중포럼, 샤먼대 남북-양안 사회통합 포럼, 서울대-연변대-김일성대 학술회의. 유럽이나 미국 연구기관과 제도화된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음.
- 행사 중심의 교류에서 장단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교류 형태 개발 (GenKo, 한러 양자교류, SDG).
- 소모성이 적고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네트워킹과 연구의 결합: 상호 비교와 참조를 통해 연구 주제 개발.
  * 사회통합: 통일 및 베트남 통일 이후 사회통합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통일 후/전(?) 통합 문제를 예측, 준비하는 문제
  * 통일모델: 최근 홍콩 보안법 사태로 문제화되고 있는 중국의 '일국양제' 해석에 대한 검토, 분단 극복 및 통일/통합 모델 비교 연구를 통해 한반도 통일모델 연구로 의제 구체화 (남북연합, 국가연합, 일국양제, 연방제 등 기존에 논의된 통일방안에 대한 심화 연구)
  * 북한개방: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개방 모델 연구와 북한에 대한 참조 가능성(베트남,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 유럽의 평화학과 EU: 유럽통합의 역사와 최근에 직면한 난제, 그것이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 지경학과 평화학: 일대일로, 유라시아, 신북방/신남방 의제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되 그것이 노정하는 공소화한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동아시아안보체제와 북핵문제: 몽골의 비핵지대화 노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주는 의미, 나가사키대 핵철폐연구소가 제기한 의제 등.

* 국립대네트워크, 한국냉전학회, 평화포럼 등을 통한 국내 네크워킹을 통한 평화학 연구의제 개발.
* 지역과 평화: 강원, 제주, 경기권에서 추진하는 평화 의제의 차별화와 연계화
* 국내외 지역간 평화의제: 동아시아 '평화의 섬': 제주-진먼-오키나와, '서해5도와 진먼' 등.

3. 주요 협력 기관과 내용

1. 유럽

기관	내용	비고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 GenKo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2017)	
헤센평화갈등 연구재단	- 석박사과정생 20명 방문, 강의 및 토론 프로그램 진행 (2013)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2017, 2018) - GenKo 공동연구 세미나 및 강의 (2019) - 한유럽 여름평화학교 공동개최 (2019) 등	
브랫포드대학 평화학대학	- 갈등해결센터 소장 T. Woodhouse AJP 보드 - 크리스토프 블루스 교수 몽골 프로젝트 공동 기획 등	
한스자이델재단	-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2011, 2016)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 빅토르 라린 소장 초청 세미나 - 한러 양자연구교류 프로젝트 공동 진행(2018-9)	

2. 아시아

기관	내용	비고
히로시마대학 평화연구소	- 상호 방문 - 강연, 세미나	
나가사키 평화센터	- 상호 방문 - 학술회의 참여	
리츠메이칸 대학 한국학과	-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베이징대 한반도센터	- 한중포럼 공동개최 (1-4회)	
화동사범대학 주변국가연구원	- 1,2회 한중평화협력포럼 공동개최(2018-9) - 션즈화 교수 연속강연 (2017)	
샤먼대학 대만연구소	- 접경지역 상호 답사 - '남북양안 사회통합과 통일' 심포지엄(2019)	
연변대(김일성대)	- 남북중 국립대 학술회의 (2015-18)	
대만 연강현 문화부 및 대만사범대	- 냉전경관과 피스 투어리즘 국제학술회의 - 금문 마조 국제학술회의 - 백령도 학술답사	
베트남 사회과학원	- 베트남탈사회주의 체제전환 프로젝트 관련 방문 - 국제학술회의 상호 초청(2019)	
몽골 인문대, Blue Banner	- 탈사회주의체제전환 국제세미나 -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엔크사이칸 대사)	

3. 미국

기관	내용	비고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	- 공동학술회의 개최 (2015)	
윌슨 센터	- 상호 방문, 학술회의 참여	
노틀담대학 크록	- 썸머 인스티튜트 참여(2회)	

4. 국내

기관	내용	
한국냉전학회	- 기관회원 - 국제학술회의(2016) 공동개최 - 국내학술회의(2020) 공동개최	'냉전과평화의 이미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대안적 지역질서 모색'
강원대	- 금강산 학술회의 공동개최 - 동해평화학교 공동개최(2019) -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전북대, 부산대, 제주대	-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 공동학술회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1부 HK평화인문학, 성과와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인문학

이문영(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인문학

이문영(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 Before Corona / After Corona : Paradigm Shift

2. 경계

- 구획/구분 → 접촉/월경 → 필터링 (흐름 속의 구분 & 구분 속의 흐름)

3. 세계화, 신자유주의, market-oriented

→ 반세계화, 보호주의, (강한) 국가의 귀환

4. 지역주의-강화? 약화? 변형?

: 지구화와 지역주의, 지역주의와 국가주의의 interdependency
: Regional Value Chain → Value-depended Region Chain
: 일대일로, 유라시아주의, 인도태평양 거대지정학의 변경

5. Double Orientalism & K-Model

: 질병과 오염, 야만의 근원으로서 아시아 -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 결합
but, 서구(미국, 유럽) - 국가 & 시민사회의 심각한 기능부전 시현
: 코로나 성공모델 - 아시아 국가들 (중국형 or 한국형)
- 중국형: 권위주의적 통제 + 비민주성
- 한국형: 민주적 통제 + 절차적 투명성
→ K-방역에 대한 서구의 찬사: 중국의 아시아성? 한국의 서구적 민주성?
→ 아시아 패러독스의 역설
→ K-Model의 가능성: 아시아적 공공성 + 민주적 시민성 = 착한 국가?
(한반도발 평화학의 가능성)

6. post-Corona vs post-Truth

: 지구화 시대 - 대문자 진리(국가, 민족)의 기각 → 소문자 진리들로의 미분
: 탈진실: Brexit & 트럼프 당선 후, '2016 올해의 단어'
- "여론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 〈 감정, 개인적 신념"
- "진리의 객관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의 상실"

- 진리의 탈근대적 해체의 지적 계보 속에 위치하나, 진리의 권위의 해체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해체를 겨냥
- 진리의 부재, 사실의 무의미가 선언된 시대, 모든 것이 진리를 자처, 모두가 진리의 담지자를 참칭
- '장삼이사'의 미디어, 정보 플랫폼을 통한 소통의 극대화
  : 진리의 훼손, 사실/허구, 진실/거짓 사이의 경계 붕괴
- 코로나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 – 탈진실의 위기 증폭("전쟁이 나면 그 첫 희생자는 늘 진실")
- 오프라인상의 극단화된 단절 → 온라인상의 불안과 공포의 소통을 극대화
- 울리히 벡 "재난보다 무서운 것은 그 재난의 '상상적 효과'"
- 공포와 불신의 확산, 공동체 붕괴 by 탈진실의 메카니즘

: 탈진실의 디스토피아의 해법: 공공성 + 시민성 → 공론의 장의 건강성 확보

7. 평화–통일–녹색의 상호연계성 강화 & 녹색의 이니셔티브 강화

: 삼원요소 간의 교집합의 극대화

: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

: 평화인문학은 "통합학문인 평화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기적 사유방식, 즉, '인문정신이라 이름할 수 있는 융합적 시각'"(박명규)

: global = 지구 생태생명 – 국제관계 – 글로벌 경제

: regional: K–방역 → NEA 방역 (코로나를 통한 동아시아 그린 협력)

: domestic (재난 약자, 경제사회적 불평등, 혐오와 차별 심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계획과 모델

김성철(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계획과 모델

김성철(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중장기 목표

1. 통일평화연구원은 미래 한국의 이념을 **통일된 평화국가**로 상정하면서 통일연구와 평화연구의 복합적이며 심층적 결합, 통합을 추구한다.
2. 한반도의 평화정착(즉 한반도 문제의 갈등 관리 및 평화적 해결)이 세계적 난제인 만큼, 통일평화연구원은 **한반도발 통일평화학의 국제적 선도**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서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3. 평화 및 통일 연구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정규 및 비정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킨다. 개원 20주년에 즈음해 서울대학교 차원에서의 **평화학대학원**(평화, 통일, 인권 등의 통합표현)의 설립을 인적, 물적으로 투입한다.
4. 국제적 선도 연구역량에 지향하고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조직을 **4센터+GLAM**으로 개편한다. GLAM은 gallery, library, archive, museum의 복합어이다.

국제, 국내 연구 선도 — 학문적 우월업적 강화

1. 1년 1회, **세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발표논문을 권위있는 해외대학출판사에서 편집 출판하거나 저널의 특집호로 게재한다.
2.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는 국제적 선도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학문적 성과(출판) 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소모적, 외형적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3. 각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국제화**하여 한반도발 통일-평화학을 실현한다. 해외출판, 영문판 분석 블로그 개설, 국제적 유수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한다.
4. 개별연구 및 공동연구의 결과물들을 해외출판사에서의 출판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내출판과 해외출판을 구분하고 프로젝트 참가자 선정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해외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사들과의 협정을 모색한다.
5. **국문저널 [통일과 평화]**은 KCI 우수등재지(현 등재후보지)를 목표로, **영문저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은 SSCI등재(현 SCOPUS등재지)를 목표로 삼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후속세대 양성

1.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중심의 1년 1회 평화, 통일 주제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물의 저널 특집호 출판을 장려한다.
2. 대학 전체의 역량에 상응한 **평화학대학원**(평화, 통일, 인권 등의 통합표현)의 설립으로 IPUS와 함께 통일,평화 교육 및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한다. 국내 학생 및 선진국 학생은 물론 저개발국, 갈등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여 국제평화에 실천적,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3. 이를 위한 이행단계에서 통일아카데미와 평화아카데미를 **단기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Research School on Peace and Unification** (PRIO의 RSPC와 연계)를 설립해 국제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편제 개편 필요

1. 연구원 확장과정에서 연구 사업과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통일기반구축사업과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등 중대형 사업이 도입되었다. 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 사업은 2020년 8월 말로 종료된다. 현 연구원 규정은 1사업단, 1센터, 6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구조는 통일학, 평화인문학사업단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다. 현 규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연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분적 구조는 다양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규정도 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2. 다음과 같이 **4센터+GLAM**으로 개편하고, 소속 연구진들은 각 연구센터에 배타적 소속이 아닌 중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4센터

평화구축	통일통합	인권·가치	조사분석
국제적 난제가 된 한반도를 위요한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갈등관리 및 평화의 구축, 제도화, 공고화에 관한 연구 주제를 국제적으로 선도한다. 평화연구의 주제들인 비핵평화는 물론 난민, 다문화, 이행정의, 개발 등의 구체적 문제를 남북한 관계에서는 물론 국제적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북한연구와 통일 연구를 일반 통합 개념 하에서 파악한다. 사회주의, 포스트사회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변화 및 통일한국의 미래와 연계해 분석한다. 경계의 인적, 지정학적 문제를 탐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법적, 철학적 연구를 개발한다.	평화가 인권 및 인도주의 실현과 밀접히 연관됨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연구를 활성화 한다. 사상, 종교, 문화, 문학, 교육 등의 학제적 차원에서 공존, 신뢰, 화해, 정의, 민주주의, 관용, 공정성, 법치 등 다양한 평화 가치 및 심성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한다.	현재의 4개 조사연구에서 추이변화 추적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치, 제도의 변화 등에 관한 '심화분석' 주제를 개발한다. 그 일환으로 국내 및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설문지 및 데이터 코드의 영문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연구를 선도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 평화 관련 분석을 개발한다.

GLAM

1. 통일, 평화연구 자료의 분석, 디지털화, 관리, 교류, 공유의 조직을 구축한다. GLAM은 교내, 국내, 국제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하며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의 시설로도 활용하며,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2.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시흥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건물건축 지원 및 지속적 운영예산을 확보한다.
3. GLAM의 4가지 구성요소에 따른 단계별 프로세스

   1) 통일학과 평화학 연구에서 축적되고 분석된 자료를 아카이브화(archive)

   2)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서지자료(library)와 사진/동영상/시청각자료(gallery)로 전환

   3)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세와 상황, 학문적 요구에 따른 주제(theme)를 설정하여 전시를 구성(museum).

   4) 전시는 일차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virtual exhibit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시흥캠퍼스에서 물리적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실제 연구 및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의 online교육, 테마전,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심화 발전 방향

이효원(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교수)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심화 발전 방향

이효원(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교수)

1. 문제제기

-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통일평화연구소로 개소(2011년 명칭 변경)된 이후 15년을 맞게 되면서 새로운 시흥캠퍼스 시대를 맞아 그 동안 연구활동을 재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평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문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학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병존**
  -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등 조직체계가 형식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함
  -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별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초적 시스템이 미비
  - 대외적 사회기여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문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이 부족

2. 발전 방향

- **통일평화연구원 내부 조직의 정비와 연구성과의 체계화**
  -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 통일학센터(통일연구실, 국제관계실, 연구기획실, 대외협력실), 평화인문학연구단(연구사업부, 교류협력부, 출판자료부)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최근 조직 정비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 중)
  - 남북통합지수, 통일의식조사 등 기초자료적 연구성과를 심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총서를 시리즈로 출판하여 후속 연구자료로 축적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함

- **서울대의 다양한 분야별 융합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현재 20여개의 연구소와 센터가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유기적 학문교류가 없어 중복적 연구,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연구의 공백, 분야별 연구내용의 모순이나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기반구축사업이 다양한 분야별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초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파편적이고 나열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그 연구성과를 종합화하고 피드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통일평화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할 것도 검토)
  - 현재 분야별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수준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특정한 이슈를 발굴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통적 주제로 종합하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문적 연구의 활용과 통일과 평화의 전문가 양성 실질화**
  - 학내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관 국가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통일과 평화에 관한 현안문제에 유용한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일아카데미(19회), 평화아카데미(7회), 평화캠프(1회, 2013년), 평화의 책 선정(5회) 등을 통해 통일과 평화의 학문적 연구를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실질화하여 교양프로그램을 넘어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제고해야 함(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강화, 프로그램의 연계와 통합 등)

- 최근 통일선도대학에 참여한 경험을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교육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학부에서의 교양과정과 전공과목 교육의 지원,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문교육 강화, 통일과 평화 관련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등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통일학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교수)

통일학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김범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1. 통일학 관련 현황

1) 개요

- 연구: 남북관계 및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포괄
- 교육: 교내/외를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판 및 기타 사회 공헌

2) 연구

- **조사사업**
  - 통일의식조사
  - 남북통합지수조사
  - 북한주민의식조사
  - 북한사회변동조사
- **남북한 통합지수**
- **통일기반구축사업 (2015~현재)**
- **통일학 관련 기획연구 (통일기반구축사업)**
- **학술회의 개최**
- **통일학포럼/세미나 개최 (vs. HK평화학포럼/세미나)**

3) 교육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2016~2019)**
- **통일아카데미**

4) 출판 및 기타 사회공헌

- **〈통일학총서〉, 〈통일학신서〉, 〈통일학연구〉 등의 출판 사업**
- **학술지 『통일과 평화』 발간**
- **대중강연회 개최**

2. 통일학 발전 방향

1) 연구

- **학제적·융학적 연구 활성화**
  -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통일학 → 농업·의료·보건·산림·자원·환경·공학 등을 융합
  -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장점을 극대화

- **데이터 기반 통일학**
  - 기존 조사사업의 심화 발전
  -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일학 (ex.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독자 고유 데이터 발굴·생산·가공

- **비교적 관점(comparative perspective)에서의 통일학**
  - 북한과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연구
  -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국가(베트남, 몽고, 쿠바 등)와 비교 연구

- **전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에서의 통일학**
  - global visibility 증진
  - 〈38 North〉 등 해외의 북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증진
  - 국제 난민 문제의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연구

2) 교육

- **평화·통일학 협동과정과 역할 분담**
  - 장기적 관점에서 역할 분담 필요: 학위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학 vs. 비학위 과정
  - 대학원 vs. 학부 vs. 시민교육 vs. 최고위과정

-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해외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3) 출판 및 기타 사회공헌

- **〈통일학총서〉 등 출판 사업 재정비**
- **학술지 『통일과 평화』 발간**
-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3. 통일학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1) 연구

- **학제적·융합적 통일학 연구 기획**
  -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하여 자체 기획연구 프로젝트 추진
  - 장기 기획연구 프로젝트 발굴 (5년~10년)
  - '시그니처' 연구 프로젝트 기획

- **양질의 독자 고유 데이터 생산·가공·축적·제공**
  - 기존 조사사업의 심화 발전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터뷰 등 고유의 독자 데이터 생산·가공·제공 (생애사 인터뷰)
  -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통한 데이터 생산·가공·축적·제공

- **통일학 연구와 지역학 연구의 연계**
  - 학내 타 연구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ex. 아시아연구소)
  - 남미지역학(라틴아메리카연구소) 등과 연계

- **Global Visibility 향상**
  - 연구 결과를 영어로 번역 출판 (ex.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조사 사업,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조사 등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

2) 교육

- **지역사회(시흥시)와 협력**
  - 시민교육
  -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 **특화된 독자 고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최고위과정 개설 재검토
  - 한반도 평화 국립대네트워크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으로 Choson Exchange 벤치마킹하여 북한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3) 출판 및 기타 사회공헌

- **〈통일학총서〉 심화 발전**
- **『통일과 평화』 등재지, 우수학술등재지로 발전**
- **지역사회와 협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연구의 쟁점과 과제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연구의 쟁점과 과제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 문제제기

- 서울대학교 HK평화인문학 연구단은 기존의 안보중심 연구와 차별화되는 학제적인 평화연구의 개념과 동향, 쟁점 등을 소개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을 지향하며 선구적인 성과들을 축적했음
- 『평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2013)의 '21세기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에서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구체적 시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을 강조하여 세계적 평화학의 흐름과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 서구와 달랐던 동아시아 맥락의 평화문제를 탐색함.
-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을 만들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가지 과제로 1) 분단 구조의 해소 2) 생활세계의 '녹색화', 3) 동북아 지역 연대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평화를 복합적으로 사고할 것을 제안하고, 대안으로 통일평화, 녹색평화, 연대평화를 규범으로 제시함.
- 이는 매우 선구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문제의 세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초점과 문제 영역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 한반도 평화문제는 거대 복합과제이므로, 평화학의 학제적인 장점을 살려, 관련된 문제군들과 학문 영역들을 정확하게 매칭하려는 노력과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지역학적 전문성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

2. 학문적 발전 방향

- **평화연구(소)와 전쟁/평화의 형태 변화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 검토**
  - 1) 그동안 평화연구의 흐름에 훨씬 다양한 입장이 생겨났으며, 2) 구체적으로 주요 평화 연구소들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해 발전 방향과 전략이 달랐고 3) 무엇보다 20세기 이후 전쟁과 평화의 형태가 바뀌었음.

- **남북관계 차원 : 분단체제 극복과 다층적 갈등구조의 분석 정교화**
  - 남북간 분단문제의 쟁점은 적어도 세가지 문제(핵, 평화, 분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핵-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과제, 단계, 로드맵과 외교 전략이 정교화/모니터링 되어야 함
  - '남북한, 북미, 북일, 미중의 다층적 갈등구조가 현재의 분단 구조속에 복잡하게 겹쳐 있는 것'(437)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비교지역주의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 질서의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Conflict Barometer 연구와 같은 정기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폭력적 갈등의 형태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차원 : 적극적 평화 연구와 지속가능한 녹색 평화 의제 선도**
  - 막연하게 '성장 패러다임을 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21세기형 평화형성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평화연구의 관점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정책적 수준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들(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유형과 중국, 베트남, 북한 유형)의 사회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화와,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 불평등과 인구, 지속가능성 문제가 어떻게 평화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평화 의제를 함께 협력해 선도해 나가야 할 필요.

- **동아시아 지역 차원 : 지역갈등 해소 방안과 지역통합 거버넌스 구체화**
  - 동아시아의 연대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지정학의 특성을 고려해, 무엇보다 당면한 미중 갈등과 긴장을 예방하고, 오랫동안 누적된 동아시아 이웃 국가간 갈등의 유산들을 해소하고, 국가간 화해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천 방향 도출. 높은 수준의 민간 지역 교류 협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지역 맥락에 맞는 구체적 지역 통합 거버넌스 모델 수립과 실천.

3. 단기적인 당면 과제

- **미중관계와 평화의 공간 만들기**
  - 미중관계가 지금까지와 달리 오랫동안 긴장이 상존할 것을 전제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긴장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경직되어 얼어붙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갈 평화의 공간을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어 두어야 함.
  - 전반적으로 2015~17년 사이 동북아 국가관계에 긴장이, 2017~2018에 선순환적 긴장 완화가, 2019년에는 다시 미중, 한일, 남북 국가간 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20년 상반기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냉각, 관망. 열광과 실망을 지나 더 성숙하고 차분하게 할 일을 하는 시기
  - 긴장이 높을땐 멈추는게 좋지만, 가만히 있는 것 만으로 관계가 좋아지진 않으니, 한국은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러, 기타 북방, 남방의 다양한 채널에서 협력의 외교공간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모든 채널을 동시에 다 작동할수 없으니 핵심 양국관계 채널, 중요 3자관계 틀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핵심 외교 자산이 될만한 협력의 틀과 쟁점들을 선정해야.
  - 예컨대 군사, 경제, 기술 분야가 민감해지니 정치적 긴장이 있을 경우에 기후나 환경위기 같은 탈정치적 의제로 다양하게 만나고 협의할 수 있고, 현재 각국 수해 피해,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어서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의 정당성 존재.
  - 정부간 협력이 어려우면 민간 교류 채널을 살려두고 부각시킬수 있음. 스포츠 협력이 주는 모멘텀을 활용해야하고, 지방과 지역 단위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흐름이 이어져야.

- **미국 대선 전후, 2021-22년 평화프로세스의 대비**
  - 11월 미국 대선까지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1)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 2)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분야에서 그전에 할 일 3)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할 일을 나누어 잘 준비해야 비교적 긍정적 흐름과 계기가 왔을 때 진행 가능
  - 11월 미국 대선으로 평화프로세스의 연속,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인데,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실무 회담을 안할 이유도 없음. 어차피 북미간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건 바이든 대통령이건 한두번의 회담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나가야 하는 일. 따라서 좋은 원칙,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해 내용적 진전이 있으면, 중요하게 참조해야할 경험이 될 수도 있음.
  - 무엇보다 한국 정부로서는 비핵-평화 회담의 진행에 대비해. 기본 원칙, 단계, 포괄적 로드맵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진행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중미 긴장 국면에서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북미 관계는 미중긴장과 별도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설득해야.
  - 한국은 동아시아에 과거의 냉전적 대립구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관계 개선을 동시 추구할 예정. 비핵화와 교류협력의 선순환은 낮은 단계에서도 서로 교환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점점 높은 수준의 교환단계로 선순환적으로 나갈 수 있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돌리는 조항도 합의하고 지속적인 이행, 실무 협의가 이어지면 가능.
  - 비핵-평화프로세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다소 무겁다면, 현재 수해 복구, 인도지원, 방역, 백신 문제로 관련 경험과 기술 보유

한 나라들끼리 최고 수준으로 협력해야하는 상황. 8월 광복절 전후, 한국 정부 주도로 남북,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제안하고. 한국의 코로나 대응 노하우 집대성해 핵심 콘트롤타워 끼리,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 협력할 것 제안 가능.

- 장기적으론 2021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려하면, G7,10,20과 달리 모든 국가가 모이는 행사여서, 일본은 21년 올림픽 잘 치르려면 주변국 정세 안정되어야 하고 남북중과 협력 필요. 중국은 22년에 동계올림픽 잘 치르려면 코로나로 악화된 국제여론 완화 필요. 두 행사 모두 국제 협력없으면 냉전적, 반쪽짜리 경쟁적 행사가 될 수도. 따라서 2021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올림픽의 대결적 성격을 최대한 중화시키는게 한국엔 좋고, 그게 일본과 중국,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갈 필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남북교류협력 연구의 현황과 진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규빈(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연구의 현황과 진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규빈(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남북교류협력 연구

- 남북 경제교류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에 시작('88 7.7선언)되었지만 경제를 통한 평화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임.
- 남북교류협력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평화를 조성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수단이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장기적인 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전략.
- 중심논리:
  1) "(신)기능주의이론에 의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경제교류와 협력이 정치군사 영역의 신뢰구축과 통합에 기여, 정치적 대화와 협력 적극 추진.
  2) "상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의 경제의 평화적 효과": 경제교류 확대와 상호의존 심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 내부의 구조적 변화 추동.
- 핵심수단: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교역, 투자, 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자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이자 전략.

■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대북관여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 김대중, 노무현 정부('98-'08): 정경분리, 유연한 상호주의에 의한 '적극적 관여'.
- 이명박, 박근혜 정부('08-'17): 정경연계,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건적 관여'.
- 문재인 정부('17-): '평화경제'의 적극적 실천, '신한반도체제'에서 경제협력공동체 형성은 평화협력공동체 형성과 함께 양대 축.

2) 남북교류협력의 실태

- 경제교류: 단순교역('98-'07) → 개성공단 위주('08-'16), '16 개성공단 폐쇄.
- 대북지원: 원조확대('98-'07), 전체 대북지원 82.1%, 초기 긴급구호에서 보건의료, 영양
- 사회문화교류: '00 남북정상회담이후 확대, '08년 이후 크게 위축.

3) 남북교류협력의 현실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뿐 아니라 북한의 주민의식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한 관계의 부침과 북한의 수용 태도에 따라 그 영역과 범위가 영향(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나 정치적 의제와 연결되는 경우).
- 경제 분야 중심: 경제발전 외 환경의 지속성 및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거나 인권, 젠더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협력을 지향하기가 어려운 구조.
- 행위자의 문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이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의한 협력을 추진, 북한에 설득하기 어려움.

■ 남북교류협력과 유엔 개발 의제

1) SDG와 북한 인식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성과와 의미를 평가하고, '포스트 2015 개발의제(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추진하기로 합의.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 발전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어젠다를 망라,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행동계획으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쉽(Partnership)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하에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 북한은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새롭게 합의한 SDGs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이행을 약속해왔음.
- 유엔의 SDGs에 대한 북한의 참여와 이행은 국제기구, 공여국, 국제 NGOs와의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을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규범 공유 및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한 수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주목됨. 이러한 점에서 유엔 SDGs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참여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다변화, 북한주민의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확대 계기.
- 북한당국은 SDGs의 169개 세부목표 가운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 할 계획으로 보임.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SDG 2(기아종식), SDG 6(물과 위생), SDG 7(깨끗한 에너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15(육상 생태계)에 대한 이행에 우선적 노력.

2) 유엔SDGs와 남북협력의 방향

- 북한의 SDGs 이행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한의 공동협력 및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와 긴밀히 연동될 수 있음. 물론 대북제재 상황의 완화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임. 2021년 북한이 자국의 SDGs 이행 과정을 보고하게 되는 '자발적 국적 리뷰(VNR)' 내용을 검토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북한은 장기화된 식량 부족 및 빈곤종식 함께 자원의 부족,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등을 극복 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북한의 SDGs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각적인 남북,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결

-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조성,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경제를 통한 평화'는 대북정책의 핵심적 전략
-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은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이라는 범위 틀로 한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북한의 수요가 크고 관심이 높으며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방면의 개발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 남북관계의 전환과 대북제재 완화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원의 교류협력을 재정비하고 기존의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계속해 나가야 함. 이와 동시에 북한에 수용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통한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 또한 중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의 양자 교류협력을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대비해야 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평화학의 연구와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

2부 시흥캠퍼스 시대의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자원불균형으로 평화문제 살펴보기 :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최진용(농업생명과학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Weaken Peace due to Resource Imbalance

Water-Food-Energy Nexus

Jin-Yong Choi

Professor, Rural Water and ICT Convergence Lab.,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t., Coll. of Agr. & Life Sci.,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ruralwater.snu.ac.kr, iamchoi@snu.ac.kr

통일평화연구원 2020. 08. 12

National/International Confl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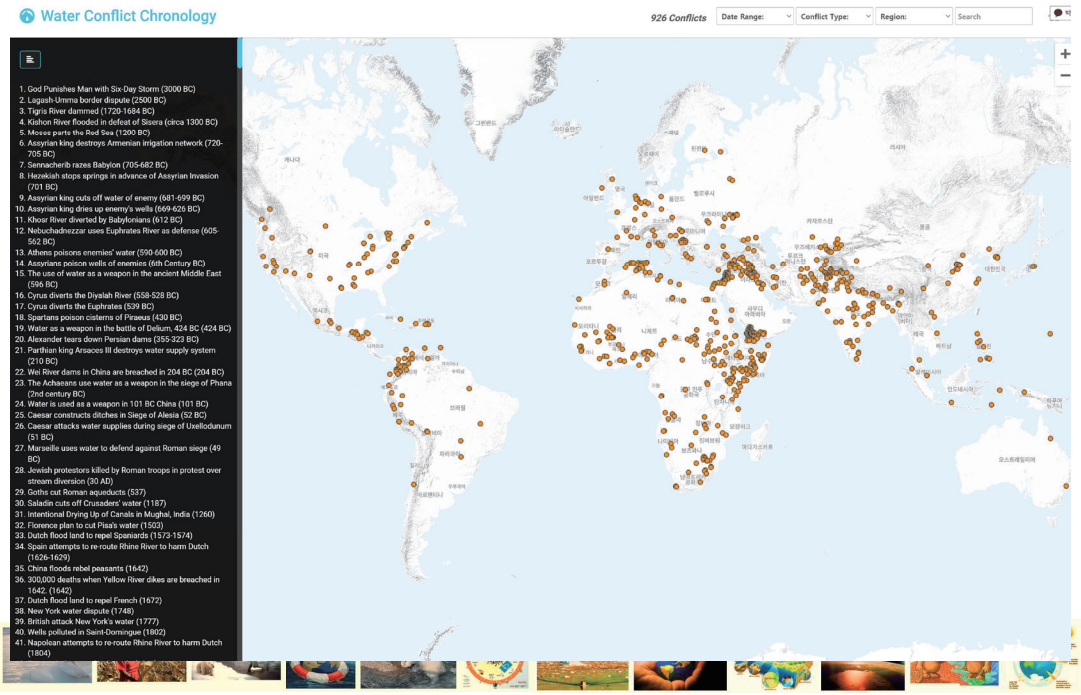
- *Lack of resources including water, food, energy*
- *Water problems*
  - *Transboundary rivers*
  - *Over abstraction*
  - *Climate change: Drought*
- *Food*
  - *Population growth*
  - *Drought*
  - *Degradation of soil fertility*
- *Energy*
  - *Uneven distribution*
  - *Price fluctuation*
    - *Middle East Confliction*
    - *China(One Belt, One Road)*
- *Water-Food-Energy Nexus Approach*

National/International Confl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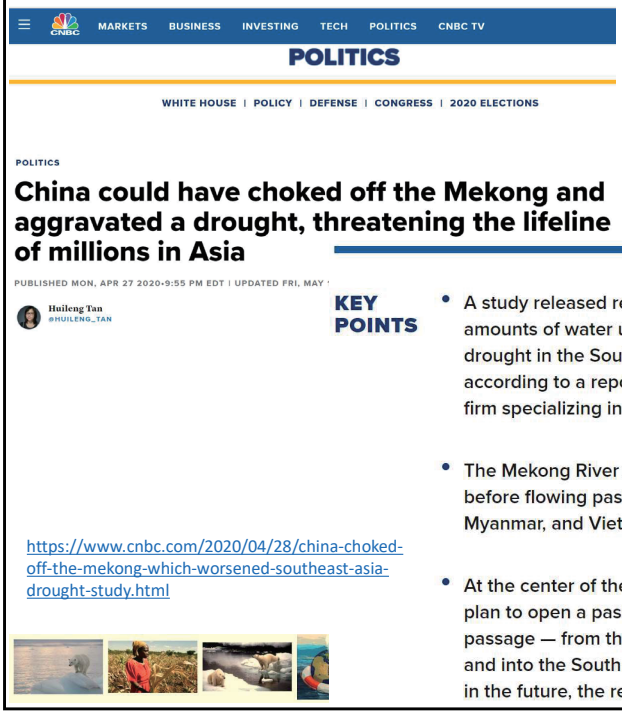
- 쿠르드 족 문제(터키)
  - 쿠르드 족이 유전지대를 장악: 시아파 세력이 쿠르드를 밀어내려는 갈등
  - 쿠르드 족의 거주 고원지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수원지➔수자원 확보 갈등이 심화되면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
- 이란과 이라크 갈등: 8년 전쟁(1980-1988)
  -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샤트-알-아랍(Shatt al-Arab) 에 대한 통제권 분쟁에서 시작
- 신장 지역
  - 중국내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탄과 철광석 매장량 2위, 중앙아시아 경제군사적 요충지
- 수단 다르푸르 내전
  - 기후변화, 사막화 심화, 식수와 식량 부족
-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 카빌라 대통령 취임 이후 카탕가 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둘러싼 다국적 기업과 정치세력 연계

이정록 외, 2016, 세계분쟁지역의 이해, 푸른길

Water Related National/International Confliction



Water Related National/International Confliction



CNBC MARKETS BUSINESS INVESTING TECH POLITICS CNBC TV

POLITICS

WHITE HOUSE | POLICY | DEFENSE | CONGRESS | 2020 ELECTIONS

POLITICS

China could have choked off the Mekong and aggravated a drought, threatening the lifeline of millions in Asia

PUBLISHED MON, APR 27 2020•9:55 PM EDT | UPDATED FRI, MAY

Huileng Tan
@HUILENG_TAN

KEY POINTS

- A study released recently found that China is holding back large amounts of water upstream on the Mekong River, contributing to drought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downstream last year, according to a report from Eyes on Earth, a research and consulting firm specializing in water.
- The Mekong River runs through six countries starting from China, before flowing past countries like Cambodia, Laos, Thailand and Myanmar, and Vietnam.
- At the center of the changing face of the Mekong is China's master plan to open a passage for massive cargo, said Fitch Solutions. That passage — from the Yunnan province through the Mekong countries and into the South China Sea — may potentially include military ships in the future, the research house added.

https://www.cnbc.com/2020/04/28/china-choked-off-the-mekong-which-worsened-southeast-asia-drought-study.html

Water Related National/International Confliction

- ***Water***
  - ***Ethiopia: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 ***Nile River: Transboundary River***
    - ***Blue Nile: Lake Tana-Ethiopia-South Sudan-Sudan-Egypt***
    - ***White Nile: Lake Victoria-Uganda-South Sudan-Sudan-Egypt***

Ethiopia's new Nile dam

통일평화연구원 발전 방향

-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인문사회 뿐 만 아니라 자연계열의 풍부한 연구 역량을 융합
- 통일 평화 문제를 인문·사회적 관점 뿐 만 아니라 자원에 관련된 기저 문제를 모델링, 원격탐사, 자원데이터베이스 분석 등과 같이 접근함으로서 정량적인 해석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통일평화연구소를 유사한 타 연구소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 판단됨
- 또한 평화연구 대상지를 특화하여 타 선도 연구소와 차별화하고 특정 지역 연구에 있어서 통평원의 인지도 향상
    - 대상지에 대한 사회. 경제, 지리 및 자연 환경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해당지역의 평화학 연구 선도와 지명도 축적

Note

Note

Note

Not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